



17일 오전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산바가 남해안의 만조시간과 겹쳐 지나면서 여수시 교동 일대가 침수돼 온통 흙탕물 바다를 이루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만조까지 겹쳐 이번엔 여수 물바다

‘산바’ 직격탄에 서시장·중앙시장 상가 일부 침수 피해

동부권 4만5000호 일시 정전 수족관 활어 떼죽음

제16호 태풍 ‘산바’가 휩쓸고 간 여수와 광양, 순천 등 전남 동부권 곳곳에는 적지않은 생채기가 남았다. 특히 태풍 상륙과 만조시간이 겹치면서 삼습침수지역인 여수 서시장 인근과 교동 중앙시장 등 도심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17일 오전 여수시 교동 중앙시장 앞. 이날 여수 지역에는 초속 23.4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56.5mm의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져 해안지역이 침수되면서 교통이 일시 두절됐다. 국동 어항단지, 신월동 넘내리, 돌산

청사 앞 저지대 등에 물이 차오르면서 상가 100여 곳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썰물과 함께 침수지역의 물은 빠졌지만 이번엔 검은모래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 해수욕장 백사장이 높은 파도와 함께 밀려온 수만여의 모래로 공사장을 방불케 했다.

강풍을 막으려고 테이프를 붙여 놓은 상가 26곳의 유리창도 산산조각났고, 현관문에 응집한 두께 2.3mm짜리 강철 문도 종이상처럼 구겨졌다.

해안가 일부 점포 안은 어른 키 높이만큼이나 검은 모래가 쌓였다. 활어를 보관했던 수족관도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다. 강풍을 피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정전으로 나머지 수족관에 있던 활어들도 모두 죽어갔다.

이밖에 삼산면과 남면, 울촌면 송도 443세대에서는 정전피해가 발생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소라면 관기들 일대 농경지 150ha가 침수돼 수확을 앞둔 벼가 물에 잠기고 쓰러졌다.

폭우로 산사태가 우려됐던 광양시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 이날 많은 비가 강풍과 함께 쏟아지면서 중마동 홈플러스 인근과 해로수당 사거리에 물이 차올라 한때 교통이 통제되고 옥곡면과 진상면, 골약동, 태인동, 진월면 등 민가 주택이 침수됐다.

오전 한때 동부권을 중심으로 4만 5000호가 일시 정전되면서 가두리 어가 등에 피해가 있었으나 오후가 되면서 긴급 복구 작업을 완료해 정상을 되찾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재소자에 속아 수익 날린 교도관

“고수의 보장”에 5억6000만원 사기 당해

사기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이던 교도소 재소자에게 교도관이 수익원을 사기 당하고, 또 다른 교도관은 이 재소자에게 뒷돈을 받고 흡연, 전자 기기 사용 등 편의를 봐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교도소가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교도관과 재소자 간 음성거래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박모(49)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2007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교도관 정모(49)씨에게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5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기업 사주의 친인척 행세를 하고 일간지를 통해 모의 주식투자를 하면서 정씨를 안심시킨 뒤 실제 주식투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돈을 받고 담배와 사시 등을 넣어주고 각종 편의를 준 또 다른 교도관 정모(4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650) 김장두



이주여성 도망갔다면 중매수수료는?

남편, 중매업체 상대 소송에

배심원 “300만원줘야” 제시

중매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지만 입국 40여 일만에 부인이 집을 나갔다면 남편은 중매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장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12명은 최근 장흥군 장흥읍 사무소에서 열린 장흥지법 민사 배심 조정에 업체가 받은 1500만원 가운데 실제 경비를 제외한 수익 300만원을 되돌려주는 안을 제시했다. 양자가 모두 이 조정을 받아들일면서 3차례 열렸던 재판에서 좁혀지 못했던 이견은 해소됐다.

17일 장흥지법에 따르면 지재

장에 3급인 임모(39)씨는 지난 2010년 11월 국제결혼 중매업체 대표인 홍모(54)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베트남 여성인 A(30)씨를 소개받아 2011년 1월 혼인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5월 입국했으나 같은 해 7월 초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자 행방을 감췄다.

임씨는 A씨와 이혼한 뒤 A씨가 이미 결혼해 자녀 2명이 있고 실제 나이도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홍씨를 상대로 2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홍씨는 입국 직후 A씨를 임씨 가족이 운영하는 오리농장 일을 시키고 결혼경력·자녀 여부는 본인만이 공개할 수 있다며 법정공방을 벌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kwangju.co.kr

전 안일 성폭행한 불법체류자 쇠고랑

○직장에서 일게 돼 1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같은 국적의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캄보디아 출신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검거.

○17일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6일 새벽 1시에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에 사는 전 안일인 A씨(여·26)를 찾아가 물건을 빌리러 온 것처럼 문을 두드려 열게 한 뒤 구타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B(25)씨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조사결과 B씨는 이미 지난 해 말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체류자로, A씨와 사귀다가 다른 캄보디아 여성과 ‘안다리’를 걸쳐 들뜬 뒤 헤어졌으나 A씨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가 쇠고랑.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뇌물 받아 챙긴 광주시 공무원

업자에 협박받아 되레 돈 뜯겨

공사를 수수하게 해주겠다고 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되레 이 업자에게 협박을 받아 6배에 이르는 돈을 뜯겼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17일 공사 수수를 돕겠다고 받은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직원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17만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이를 빌미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뇌물공여)로 기소된 오모(5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12일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등기소 주차장에서 상수도 관련 공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등 오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517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산바 왜 약해졌나?

강한 바람을 동반해 큰 피해가 예상됐던 제16호 태풍 ‘산바’(SAN-BA)는 당초 예상과 달리 17일 광주·전남지역을 비교적 약전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지난 11일 발생한 산바는 필리핀

북태평양 고기압 수축 동쪽 선회

한반도로 접근하며 세력 위축

동쪽의 고온 수역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힘을 키웠다. 산바는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전형적인 가을태풍의 모습을 보이면서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꼽히는 지난 2003년 ‘매미’(MAEMI)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됐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북태평

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의 진로가 동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분석했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는 특성이 있는데, 북태평양이 통과한 지난날 말보다 세력이 약해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해상에만 걸쳐 있어 산바가 동쪽으로 방향이 틀었다는 것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트레이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